

## 중원 고구려비 영문안내판의 문법적 오류\*

박순봉 · 최희섭  
(건국대 · 전주대)

### 1. 서론

본고는 충주시 중원고구려비의 영어 안내문을 대상으로 오류를 점검하고 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가금면 용정리에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 국보 205호 「중원고구려비」가 있다. 화강암을 다듬어 사면에 글자를 새겨놓았는데, 야외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마모되어 표면에 새겨진 글자를 제대로 판독할 수 없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삼국시대의 고구려의 세력과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기 때문에 발견되자마자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요즈음에는 탑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각을 세워 보존하고 있다.

중원고구려비가 이와 같이 귀중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 비석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당

---

\* 이 논문은 2009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연하다. 평범한 역사 유물이나 유적이 아니라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에는 오류가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안내판을 실제로 읽어보면 영어 안내판에 뿐만 아니라 한글 안내판에도 적지 않은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안내판의 문구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부록에 안내판 사진을 제시한다.

본고는 번역의 관점에서 안내판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한글 안내판을 원천 텍스트(ST)로 삼고 영어 안내판을 목표 텍스트(TT)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 텍스트인 한글 안내판의 오류는 점검하지 않는다. 본고는 원천 텍스트를 목표 텍스트로 옮기는 데 있어서 발생한 문법적인 오류만을 영어 안내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관광지 안내판의 오류를 점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 ST와 TT를 개략적으로 비교하여 TT가 이 ST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번역한 것인가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는 TT를 중심으로 문법적인 오류를 구체적으로 점검한다.

## 2.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번역에 관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번역학회의 학술지인 『번역학연구』에 발표된 최근 연구는 부산외대 김도훈의 논문 한 편과 경희대 정일영의 논문 세 편과 전주대 최희섭의 논문 세 편이 있을 뿐이다. 물론 번역학이나 관광정보를 주로 다루는 다른 학술지에 관광자원의 번역에 관한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번역학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우리나라의 학술지인 『번역학연구』에 수록되어 있는 논문이 이와 같이 소수이므로 다른 학술지에도 거의 없으리라고 짐작된다.

김도훈은 2006년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전략: 부산 관광지 안내 표지판 및 책자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부산 지역의 관광지 안내판과 팸플릿의 번역에 어떠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연구하였다. 정일영은 2002년 「일본어 역 관광자원해설 리플릿에 나타나는 오류에 관한 연구」, 2003년 「웹사이트의 일본어역 관광안내문 오류에 관한 연구

(고궁을 중심으로), 2006년 「일본어 역 고궁안내문의 문제점 고찰: 매체별 문제점 종합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세 편의 논문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안내판의 일본어 번역에 나타난 오류를 분석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정부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일본어 번역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일본어 안내판이 많지 않아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관광공사와 정부의 웹사이트의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최희섭은 2008년 「광한루원의 영어 안내판에 나타난 고유명사 철자 오류」와 「영어 관광안내판의 번역 오류: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2009년 「“경기전”일대 영어 안내판의 오류분석: 보물과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그는 또한 2009년 동화와 번역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동화와 번역』에 「‘경기전’경내 영어안내판의 오류 실태: 왕의 안내판을 중심으로」와, 한국통번역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통번역 교육 연구』에 「관광지 안내판의 교육적 활용: ‘전주사고’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그는 이들 논문에서 전라북도 지방에 위치한 문화재의 안내판에 나타난 오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이 분석한 대상은 보물이나 유형문화재 등과 같은 문화적 가치가 국보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한 안내판이다. 김도훈의 연구대상은 부산지역의 일반 관광지 안내판으로 문화재와는 관계 없는 것들이다. 최희섭이 「광한루원의 영어 안내판에 나타난 고유명사 철자 오류」에서 밝힌 대로 보물과 사적은 국가지정 문화재이지만, 국가지정문화재 보다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도지정문화재이거나 도지정문화재도 아니다(259). 국가나 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재일 경우에는 그 안내판의 관리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일영과 최희섭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 3. 본문 오류 분석

#### 3.1. ST와 TT의 불일치

번역에서의 오류는 문맥파악을 잘못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 가장 많다. 번역작업은 문맥과의 씨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번역과정은 작업현장에서 원문의 문맥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남성우 78). 문맥을 잘못 파악하는 것은 ST인 한글 안내판이 복잡한 문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록에 제시된 ‘중원고구려비’ 사진을 보면 ST가 얼마나 난해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본문의 길이는 14행에 이르며, 4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짧은 문장은 3행이며 긴 문장은 5행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독자인 관광객은 물론 전문가도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번역자도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TT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부록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ST는 두 문단, 4 문장으로 되어 있으나, TT는 5 문단, 10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번역자가 ST의 형식까지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형식까지 일치시키기에는 번역작업이 너무 어렵거나 번역했을 때 가독성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독성을 중시한다 해도 ST에 없는 요소가 TT에 불필요하게 삽입되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안내판의 ST와 TT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TT가 이 ST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준다. ST의 첫 문장과 TT의 첫 문장을 비교해보면 문맥파악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와 불필요한 삽입이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1) ST: 선돌(立石)마을 어귀에 서 있던 돌기둥이 고구려비로 밝혀진 것은 1979년 예성문화연구회에 의해서이며,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이 현지조사하여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TT : This monument was discovered by the Academic Investigation Team of Danguk University and Yeoseong Culture Study Society on April 8, 1979—the only Goguryeo monument extant in Korea. In 1981 a protective structure was built for it.

ST에는 예성문화연구회가 선돌 마을 어귀에 있던 돌기둥을 고구려비라는 사실

을 밝혀낸 것은 1979년이고, 후에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이 이를 학계에 알렸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이 학계에 알린 것이 언제 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돌기둥이 발견된 위치와 처음 발견된 년도, 그리고 발견주체를 예성문화연구회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기념비의 존재를 학계에 알린 것은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이지만, 발견한 것은 충주시의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유적을 답사하고 연구하는 모임인 예성문화연구회이다.

TT는 이 기념비가 발견된 장소는 현재 중원고구려비가 위치한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그 위치를 밝히지 않았으며, 발견 주체를 예성문화연구회와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이 공동으로 발견한 것으로 하고 있다. 학술조사단을 앞에 위치시키고 단국대학교와 예성문화연구회를 뒤에 위치시킴으로써 학술조사단이 공동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기념비를 발견한 주체를 왜곡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ST에는 발견 년도만 밝혀져 있는데, TT는 1979년 4월 8일이라고 날짜까지 명시하고 있다. 학술논문이거나 기록문서라면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겠지만, 안내문에서 날짜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ST에는 이 기념비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비라는 말을 다음 문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TT에는 첫 문장에서 댓쉬를 사용하여 부연설명하고 있으며, 이 비를 보존하기 위한 건축물이 1981년에 세워졌다는 말이 ST에는 없는데 TT에는 들어 있다. 정확한 날짜와 이 비의 보존을 위한 건물이 신축되었다는 사실이 삽입되어 있어, TT가 ST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TT가 이 ST를 기반으로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다음 문장에서 더욱 심화된다. 이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ST와 TT는 매우 달라 TT가 ST를 번역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ST의 의미를 유사하게 번역한 구절은 TT의 맨 마지막 문장이다.

(2) ST: 국내·외에 현존하는 고구려비는 현 길림성 집안시 통구(吉林省 輯安市 通溝)에 있는 광개토태왕릉비와 중원고구려비 뿐인데, 이 비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비이므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TT: The shape of the monument is a miniature of Gouryeo King Gwanggaeto's huge stone stele still standing at his tomb in Gungnaeseong

(at modern Tungkou, on the Manchurian side of the mid-Yalu river.)<sup>1)</sup>

여기에서 ST는 현존하는 고구려비가 광개토태왕릉비와 중원고구려비임을 밝히며, 이 비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비라는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에 TT는 이 비의 형태가 압록강 중류의 만주지방인 통구에 있는 거려왕(밑줄 필자 강조) 광개토태의 거대한 석비를 축소한 모양이라고 되어 있다. 고구려를 영어로 표기할 때 이 안내판의 다른 부분에서는 ‘Goguryeo’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o’와 ‘u’ 사이에 ‘g’가 빠짐으로 인하여 역사상 존재하지 않은 나라가 되고 말았다. 사소한 철자상의 오류이지만 나라의 이름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TT에서 광개토태왕비가 있는 장소를 설명하는 궁내성과 압록강 중류의 만주지방은 ST에 없는 내용이다. 또한 ST에는 현재의 지명을 “길림성 집안시 통구”라고 밝히고 있는데 TT에는 궁내성이라는 옛 지명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곳이 현대에는 “통구”라는 장소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을 괄호 속에 삽입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2008년 1월에 발간한 『2007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 “영어 표기할 때 제목이나, 표지판 등에 쓰이는 용어는 괄호표기를 하지 않는다”(5)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비라는 사실은 예문 (1)에서 댛쉬로 처리하여 부연설명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는 역사적 가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어지는 문장은 TT가 이 ST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기정사실화한다.

(3) ST: 이 비는 마모된 부분이 많아서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알아낼 수는 없지만, 삼국시대의 역사를 살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로, 예서풍의 글씨를 4면에 모두 새긴 대략 400여자의 비로 추정된다.

TT: Having long been weathered by exposure, the inscription is somewhat worn out.

Since it was a monument erected to commemorate Goguryeo King Jangsu's(413-491) overrunning enemy castles in the basin of the

1) 본고에서 밑줄 친 부분은 필자의 강조이다.

Namhangang river, it is presumed to have been erected in the latter half of the fifth century A.D.

It is a four-facet monument. It is inferred that there was on the front part a 230-lettered inscription, composed of 10 lines, each of which had 23 Chinese characters. On the left as we face it 155 Chinese ideographs were inscribed and on the back and on the right side it appear there were nine-line inscriptions respectively.

위의 예문은 ST에 비하여 TT가 매우 길다. 이는 ST에 없는 내용이 TT에 많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ST는 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자가 마모되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삼국시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석의 4면에 예서풍의 글자가 400여자 새겨져 있다고 되어 있다. TT는 ST에 없는 많은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TT의 내용은 이 비가 풍화되어 글자가 마모되었으며, 고구려의 장수왕을 기념하기 위하여 남한강 유역에 세웠다는 사실과 이 비가 설치된 연대가 5세기 후반부라는 것이다. 이 비의 4면에 새겨진 글자의 숫자를 각 면에 따라 각각 나열하고 있으며 몇 행으로 되어 있는지 까지 설명하고 있다.

ST의 마지막 문장은 주로 이 기념비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부근에서 발견된 다른 역사적 유물과의 관계와 전략적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4) ST: 주변은 남한강을 이용한 수로교통과 육로교통상 전략적 중요지점으로 장미산성과 봉황리 마애불상군의 존재, 노은면(老隱面)에서 고구려시대의 금동광배(金銅光背)사 출토된 것 등으로 미루어 5세기 후반 고구려가 충주 지역을 차지한 후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을 국원(國原)이라 이름한 뒤 장차 남방진출의 거점이 될 이곳에 기념비를 건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TT: According to what few Chinese ideographs were deciphered, the inscriptions seem to be valuable ones denoting the relations between Goguryeo, Silla, and Baekje—the Three Kingdoms. From the time of erecting the monument it appears to have had no pedestal and roofstone.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TT는 이 비에 새겨져 있는 글자를 해독한 결과

고구려, 신라, 백제 3국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이 비가 기단석과 지붕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을 하고 있다. ST에 밝혀져 있는 이 비석이 이곳에 설치된 이유 및 이 기념비가 설치된 연대를 5세기 후반으로 짐작할 수 있는 근거인, 근방에 위치한 장미산성과 마애불상군, 그리고 금동광배에 대하여 TT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예문 (3)의 ST에 있는 3국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ST의 이 문장에 있는 이 비가 세워진 연대를 앞에서 살펴본 (3)의 TT 중간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ST에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이 ‘국원’이었다는 사실과 이 지역이 남방진출의 거점이 된다는 사실이 TT에 밝혀져 있지 않다. 그 대신에 이 비석의 원래의 모양을 추정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ST와 TT를 비교해본 결과 TT는 이 ST를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ST와 TT의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ST와 TT의 내용이 너무 다르기 힘들기 때문에 번역의 충실성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번역의 충실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절이나 내용을 번역가가 임의로 삭제 내지는 생략하거나 삽입하여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는 정도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박경일 17).

‘중원고구려비’의 한글 안내판과 영어 안내판은 너무도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실성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충실하지 못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국보급 문화재의 번역이 충실성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라는 점은 관리부실의 문제와 더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ST와 TT를 비교하여 번역의 충실성 문제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TT를 중심으로 어휘의 오용과 문법상의 오류를 점검하는 것에 논의를 한정한다.

### 3.2. 어휘의 오용

‘중원 고구려비’의 영어 안내판에는 잘못 사용된 어휘가 많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 네 가지만 살펴보도록 한다.

(5) a protective structure was built for it

이 문장은 고구려비를 보호하는 건물이 건축되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보호하는 건물은 부록에 제시된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정자이다. 그러므로 “protective structure” 보다 “arbor”나 “pavilion”이 적합하다. 고구려비를 위해 보호하는 건물을 세웠다고 하기 보다는 정자를 세워 보호했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an arbor was built to protect it”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예문에서도 잘못된 어휘가 사용되었다.

(6) Goguryeo King Jangsu's(413-491) overrunning enemy castles in the basin of the Namhangang river

여기에서는 동명사로 쓰인 “overrunning”은 바르지 못한 어휘이다. 문맥상 장수왕이 적군의 성들을 함락한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사용된 “overrunning”이라는 어휘는 장수왕이 적군의 성을 침략하여 황폐하게 했다는 의미를 암시한다. 이 고구려비는 장수왕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므로 침략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정복했다는 의미의 어휘가 필요하다. 장수왕이 적군의 성을 정복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conquering”이나 “defeating”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바른 어휘를 사용하여 번역하면 “Goguryeo King Jangsu's (413-491) conquering enemy in the basin of the Namhangang river”라고 될 것이다.

다음 구절에서도 잘못 사용된 어휘의 예를 볼 수 있다.

(7) the shape of the monument is a miniature of Gouryeo<sup>2)</sup> King Gwanggaeto's huge stone stele

이 구절은 장수왕의 비인 중원에 위치한 고구려비가 광개토대왕의 석비보다 규모가 작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예문은 이 비의 모양이 광개토왕의 거대한 석비의 축소판이라고 해석된다. 장수왕의 비도 돌로 만들어진 석비이고, 광개토왕의 비도 석비이므로 “stone”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려면 두 비 모두에 사용해야 의미

2) Gouryeo의 철자가 잘못되어 있음은 앞에서 논의했으므로 여기에서 재론하지 않는다.

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이 석비의 ‘모양’이 광개토왕의 석비의 축소판이 아니라 이 ‘석비’가 축소판이므로 “the shape”라는 어휘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Stone stele”도 또한 동어반복에 의해 잘못된 표현이다. “Stele”의 의미가 “기념 석주”, “석비”의 의미이므로 그 앞에 다시 “stone”을 넣어 수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Miniature”라는 어휘도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석비가 광개토왕의 석비보다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아주 소형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this monument is similar to Goguryeo King Gwanggaeto's stele but small”이라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구절은 동사와 명사, 전치사 등 여러 가지가 잘못된 경우를 보여준다.

(8) the inscriptions seem to be valuable ones denoting the relations between Goguryeo, Silla, and Baekje — the Three Kingdoms.

중원 고구려비가 국보로 지정된 것은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TT는 “seem to be”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석비의 4면에 비문이 새겨져 있지만, 각 면에 하나의 비문의 일부가 새겨져 있는 것이므로 “inscriptions”도 복수로 쓰지 않고 “inscription”이라고 단수로 쓰는 것이 옳바르다. 이 어휘를 단수로 쓰면 이 어휘를 받는 부정대명사 “ones”도 “one”이 되어야 한다. 그 뒤에 현재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 “denoting”은 “표시하다, 나타내다, 의미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여기에 적합한 어휘가 아니다. 이 비문이 보여주는 것이므로 “showing”이라는 어휘가 보다 적합하다. 잘못 사용된 어휘를 올바른 어휘로 바꾸어 번역하면 “the inscription is a valuable one showing the relations of the three kingdoms named Goguryeo, Silla, and Baekje”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어휘의 오용은 단수 복수의 문제에서부터 불필요한 장황한 표현을 비롯하여, 비슷한 의미이지만 용법이 전혀 다른 어휘까지 다양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번역자의 실력부족인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번역물을 감수하지 않았거나 감수했다라도 번역자와 마찬가지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 3.3. 문법상의 오류

‘중원고구려비’의 영어 안내판에 있는 문법상의 오류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부연 설명하는 수식어구의 위치 오류에서부터, 전치사의 오류, 동사의 굴절 오류, 태의 오류까지 다양하다. 이들 오류의 예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동일한 문장이 여러 가지 오류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장이 여러 번 예시되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예문을 가능하면 많이 예시하지 않기 위하여 문장의 일부만 인용하며 말줄임표를 생략한다.

#### 3.3.1. 수식어구의 위치 오류

영어에서 명사나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형용사구가 수식하고, 동사와 형용사, 부사는 부사나 부사구가 수식한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형용사는 수식받는 말의 바로 앞에 위치한다. 부사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위치가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댓쉬를 사용하여 수식하고 있는데, 댓쉬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음을 살펴본다.

(9) This monument was discovered by the Academic Investigation Team of Danguk University and Yeoseong Culture Study Society on April 8, 1979—the only Goguryeo monument extant in Korea.

위의 예문에서 밑줄 친 “the only Goguryeo monument extant in Korea”는 이 기념비를 설명하는 수식어구이다. 여기에는 문법상의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 우선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무엇이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고구려비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위치상으로 보면 1979년을 설명하는 말로 볼 수 있다. 안내판에는 괄호를 이용하여 주석을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댓쉬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도 괄호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관광안내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관광안내판에 설명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면, 본문 중에 풀어서 넣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관련 정보를 문장 내에 자연스럽게 삽입하는 방법, 다시 말하여

마치 ST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삽입하여 번역독자가 삽입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최희섭 72).

부득이 괄호를 사용하거나 댛쉬를 사용하여 주석을 붙여야 한다면, 그 위치는 해당되는 말의 바로 뒤에 삽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주어인 “This monument” 바로 뒤에 넣어야 한다.

부사 “only”는 수식을 받는 말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Quirk, R. et al 432). 여기에서는 “Goguryeo”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식받는 말이 “Goguryeo”가 된다. 번역자는 “Goguryeo monument”를 하나의 단어로 생각하여 그 앞에 위치시킨 것으로 보인다. ST에서는 “고구려비”를 한 단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어진 TT에서 “Goguryeo”는 “monument”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부사 “only”의 위치를 바르게 하여 이 구절을 문법적으로 바르게 고치면 “the only monument of Goguryeo extant in Korea”라고 된다.

댛쉬를 사용하여 설명한 경우가 한 곳 더 있지만, 논하지 않고 부사의 수식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본다.

(10) It is inferred that there was on the front part a 230-lettered inscription, composed of 10 lines, each of which had 23 Chinese characters.

위의 예문에서 종속절이 유도부사 구문인데, 장소부사구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유도부사 구문에서 장소부사는 통상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한다. 유도부사 “there”가 이끄는 문장의 순서는 [there + (auxiliaries) + BE + subject + predication]이므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는 주어명사구 뒤에 위치하여야 한다(Quirk, R. et al 956). 여기에서 주어인 “a 230-lettered inscription”의 앞에 위치한 “on the front part”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이므로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또한 “on the front part”에서 “front”가 “앞면”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part”를 넣은 것은 불필요한 사족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수식어구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사의 위치가 자유롭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번역자 나름대로 편리한 위치에 삽입할 수는 없다. 특정한 경우에는 특정한 장소에 형용사나 부사(구)가

위치해야 한다.

### 3.3.2. 전치사의 오류

전치사는 대부분 한 가지 의미만 지니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전치사가 반드시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에 맞지 않으면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예로 든 구절을 다시 예로 든다.

(11) the relations between Goguryeo, Silla, and Baekje

전치사 “between”은 통상 둘 사이를 가리킬 때 쓰고 “among”은 통상 셋 이상 사이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여기에서는 고구려, 신라, 백제 3국 사이를 가리키므로 “between”보다는 “among”이 적합하다.

다른 구절을 하나 더 예로 든다.

(12) From the time of erecting the monument it appears to have had no pedestal

이 문장은 이 기념비가 세워질 때부터 기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는 전치사 “From”이 잘못 사용되었다. “세워질 때부터”라는 의미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From the time of erecting”이라고 하였는데,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이라는 의미이므로 “세워진 이래로 계속”이라는 의미의 “since”를 사용해야 한다. 전치사 “since”를 사용하면 “the time”이라는 어휘도 필요 없고 “since the erection of the monument”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할 경우 뒤에 오는 문장도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there is no pedestal”이라고 해야 한다.

전치사는 바로 뒤에 오는 명사나 명사 상당어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와의 관계도 있으므로 전치사가 바뀌면 문장 전체가 수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의미가 비슷해도 용법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전치사의 사용에

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데, 번역자는 이를 등한히 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

### 3.3.3. 동사의 굴절 오류

영어는 동사의 굴절이 많지 않은 언어이다. 일반적으로 현재분사형과 과거와 과거완료 등 시제의 변화에 따라 굴절하며, 주어는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동사에 “-s”나 “-es”가 붙는 정도에 그친다. 이와 같은 간단한 규칙을 준수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는 3인칭 단수이고 현재시제일 때 동사의 굴절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안내판에도 이와 같은 기초적인 오류를 범한 곳이 있다.

(13) on the right side it appear there were nine-line inscriptions

이 문장의 주어는 고구려비를 가리키는 “it”이다. 그러므로 현재시제인 이 문장에서는 동사에 “-s”가 붙어 “appears”로 되어야 한다. 이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동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문법사항이지만, 실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 영어 안내판을 번역한 전문가도 이러한 초보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

### 3.3.4. 태의 오류

이 안내판에는 수동태 문장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오류가 있는 곳은 한 곳 뿐이다. 수동태 문장이 많이 사용된 것은 행위자를 구태여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행위자를 잘못 밝힌 경우이다.

(14) Having long been weathered by exposure, the inscription is some worn out.

위의 예문은 얼핏보아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분사구문이 사용되었는데, 분사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므로 주어는 생략되었고,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완료 분사구문이 사용되었다.

밑줄 친 수동문을 능동문으로 전환하면 잘못된 문장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 문장을 능동문으로 고치려면 우선 분사구문을 접속사가 있는 종속절로 바꾸어야 한다. 절로 바꾸면 “As the inscription was long weathered by exposure”로 된다. 이 문장을 능동문으로 고치면 “As exposure weathered long the inscription”이 된다. 이 능동문은 의미가 통하지 않는, 잘못된 문장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수동문에서 행위자를 “exposure”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비바람에 맞게 하다, 풍화시키다”라는 의미의 “weather” 자체가 “비바람에 노출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공연히 같은 의미의 “exposure”를 행위자로 위치시켜 오류가 발생했다.

#### 4. 결론

‘중원 고구려비’의 한글 안내판과 영어 안내판의 내용이 첫 부분은 유사하지만, 중반 이후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영어 안내판이 한글 안내판을 번역한 것이라고 하기 힘들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번역의 충실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기에 논하지 않았다.

본문의 오류를 분석하면서 잘못된 어휘의 사용을 살펴보고, 문법적인 오류의 분석은 ST와 TT를 비교하지 않고 TT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식어구의 위치 오류, 전치사의 오류, 동사의 굴절의 오류, 태의 오류 등으로 세분하여 고찰한 결과 상당히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영어 안내판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거의 매 행마다 하나 이상의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보의 안내판에 이와 같이 많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재의 관리와 홍보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광 안내판은 그 문화재에 대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국가를 홍보하며, 나라의 품격을 대변한다. 특히 영어 안내판은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외교관의 역할을 한다(최희섭, 2008 217). 이러한 점에서 영어 안내판의 번역에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오류를 방지하는 한 가지 방법은 번역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번역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번역자를 홍보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름을 밝힌다면 번역자가 보다 책임감을 지니고 번역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관리 담당자의 연락처를 안내판에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안내판의 관리주체 내지는 번역자를 밝히는 것은 번역자 및 관리자에게 압박이 되므로 보다 충실한 번역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만 이것은 미봉책일 뿐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관광 안내판의 번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번역가의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관광안내판의 문안 작성과 번역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번역 전문가가 상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번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 문안 작성을 의뢰받은 단체나 개인이 주변의 인사에게 번역을 의뢰하는 실정이다.

관광 안내판의 번역은 일반번역과는 달리 보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역사적, 문화적 지식을 갖추고 국가관과 사명감이 강한 번역 전문가의 양성과 채용이 필요하다. 읍이나 면과 같은 작은 지방자치단체에 산재한 관광 안내판의 숫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시나 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숫자가 매우 많다. 안내판이 나라의 얼굴임을 인식한다면 이의 작성과 번역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내판의 번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한영번역가가 아니라 문화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번역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채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도훈. 2006.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전략: 부산 관광지 안내 표지판 및 책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 31-51.
- 남성우. 2006. 『통번역의 이해와 수행』. 서울: 한국문화사.
- 박경일. 2003. 「영어/번역 어떻게 가르칠까/공부할까?(I)」, 『번역학연구』, 4:1, 5-26.
- 정일영. 2002. 「일본어 역 관광자원해설 리플릿에 나타나는 오류에 관한연구」, 『번역학연구』, 3:2, 113-31.

- \_\_\_\_\_. 2003. 「웹사이트의 일본어역 관광안내문 오류에 관한 연구(고궁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4:1, 73-95.
- \_\_\_\_\_. 2006. 「일본어 역 고궁안내문의 문제점 고찰: 매체별 문제점 종합분석」, 『번역학연구』, 7:1, 177-97.
- 최희섭. 2008. 「광한루원의 영어 안내판에 나타난 고유명사 철자 오류」, 『번역학연구』, 9:1, 259-81.
- \_\_\_\_\_. 2008. 「영어 관광안내판의 번역 오류: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2, 217-40.
- \_\_\_\_\_. 2009. 「“경기전”일대 영어안내판의 오류분석: 보물과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0:1, 199-223.
- \_\_\_\_\_. 2009. 「‘경기전’ 경내 영어안내판의 오류 실태: 왕의 안내판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17집, 335-64.
- \_\_\_\_\_. 2009. 「관광지 안내판의 교육적 활용: ‘전주사고’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7:1, 73-95.
- \_\_\_\_\_. 2007. 『번역 첫걸음 내딛기』. 서울: 도서출판 동인.
- 한국관광공사. 2008. 『2007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Quirk, R. et al.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Group Ltd.

부록 1. 중원고구려비



부록 2 중원고구려비 안내판

**중원고구려비(中原 高句麗碑)**

국보 제205호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선돌(立石)마을 어귀에 서 있던 돌기둥이 고구려비로 밝혀진 것은 1979년 예성문화연구회에 의해서이며,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이 현지조사하여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국내 · 외에 현존하는 고구려비는 현 길림성 집안시 동구(吉林省 輯安市 通溝)에 있는 광개토태왕릉비와 중원고구려비 뿐인데, 이 비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유일한 고구려비이므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 비는 마모된 부분이 많아서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알아낼 수는 없지만, 삼국시대의 역사를 살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로, 예서풍의 글씨를 4면에 모두 새긴 예전 400여자의 비문 유적이다.

주변은 남한강을 이용한 수로교통과 육로교통망 건설전 중원지역으로 삼이산성과 봉황리 마애불상군의 존재, 도음면(道陰面)에서 고구려시대의 금동광배(金銅光背)가 출토된 것 등으로 미루어 5세기 후반 고구려가 중주 지역을 차지한 후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지역을 국원(國原)이라 이름한 뒤 점차 기념전환의 기점이 될 이곳에 기념비를 건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onument of Goguryeo in Jungwon**

National Treasure No. 205  
Location : Yongjeon-ri, Gageum-myeon, Chungju-si,  
Chungcheongbuk-do

This monument was discovered by the Academic Investigation Team of Danguk University and Yeoseong Culture Study Society on April 8, 1979 -the only Goguryeo monument extant in Korea. In 1981 a protective structure was built for it.

Having long been weathered by exposure, the inscription is some worn out.

Since it was a monument erected to commemorate Goguryeo King Jangsu's(413-491) overrunning enemy castles in the basin of the Namhangang river, it is presumed to have been erected in the latter half of the fifth century A.D.

It is a four-facet monument. It is inferred that there was on the front part a 230-lettered inscription, composed of 10 lines, each of which had 23 Chinese characters. On the left as we face it 155 Chinese ideographs were inscribed and on the back and on the right side it appear there were nine-line inscriptions respectively.

According to what few Chinese ideographs were deciphered, the inscriptions seem to be valuable ones denoting the relations between Goguryeo, Silla, and Baekje - the Three Kingdoms. From the time of erecting the monument it appears to have had no pedestal and roofstone. The shape of the monument is a miniature of Goguryeo King Gwanggaeto's huge stone stele still standing at his tomb in Gungnaesong (at modern Tungkou, on the Manchurian side of the mid-Yalu river).

[Abstract]

**Grammatical Errors in the English Information Board of  
'the Monument of Goguryeo in Jungwon'**

Park, Soon-bong · Choi, Hie Sup  
(Konkuk University · Jeonu University)

'The monument of Goguryeo in Jungwon' is a national treasure located in Chungju-si. The monument is an important historical and cultural material to show the relations of the three kingdoms named Goguryeo, Silla and Baekje. It seems to be erected to declare that Goguryeo king Jangsu conquered this area in the fifth century.

As this is a national treasure, the information board describe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importance of the treasure. Reading the information board is too difficult, for it contains too many grammatical errors. Comparing the Korean information board with the English one, we can easily find the discrepancy of the contents. Furthermore, the English information board itself contains many grammatical errors and a lot of vocabulary which is not proper for that place. The errors examined in this paper is categorized into such four sub-sections as the place of modifiers, prepositions, conjugation of the verbs, and voice.

There should be taken some methods to make the translation of the information board free from errors. To disclose the translator's name on the information board will be an effective way to prevent errors. And if it is difficult, at least the telephone number of the managing officer should be written on the board. But to make the information board in good English, there should be some kind of national policy such as educating and recruiting good interpreters of the information boards.

▶ Key Words: grammatical errors, national treasure, information board, vocabulary, preposition, conjugation of the verbs, voice

박순봉

건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부 교수

sbpark@kku.ac.kr

관심분야: 영어학, 번역학

최희섭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영문과 교수

choihiesup@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 영시, 동서비교문학

논문투고일: 2009년 08월 03일

심사완료일: 2009년 08월 20일

게재확정일: 2009년 09월 05일